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Ⅲ: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김희진 선임연구위원
장근영 선임연구위원

요약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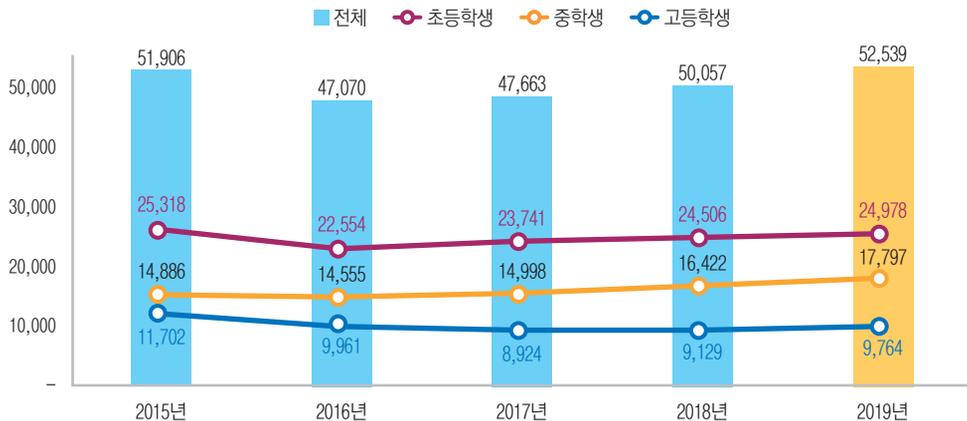
- 본 연구는 2018년부터 수행해 온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질적패널조사를 중심으로」의 3차년도 연구로, 2020년에는 청소년기 중·후반과 성인기 이행과정에 있는 10대 중·후반~20대 중반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수행하여 심층적인 질적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였음. 또한 주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의 현장종사자 설문·면접조사를 통해 대도시를 중심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 이를 위해 2018년부터 질적 패널로 본 조사에 참여한 기존 학교 밖 청소년 패널(대도시 거주)에 대해 면접조사를 수행하였고 최근 학교를 떠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신규 질적 패널을 구축하여 학업중단 사유, 학교를 떠난 이후의 경험, 진로준비 및 지역사회에서의 지원 경험 등에 대해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일부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활시간을 조사하여 이들이 학교를 떠난 뒤의 생활과 경험을 면밀히 살펴보고자 하였음. 2020년의 지역사회 지원체계 연구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함에 따라 대도시 소재 꿈드림 종사자를 대상으로 웹 설문조사를 수행하였고, 3개 대도시 자치구의 꿈드림 종사자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음.
- 이러한 과정을 거쳐,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기본 방향으로 ① 청소년의 요구와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지원 마련, ②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의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 강화, ③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대대적인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및 홍보, ④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전문성 강화와 인프라 개선, ⑤ 지역사회 및 환경을 고려한 지원체계 구축, ⑥ 대도시 꿈드림의 차별화 전략 구축 등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한 15개 정책과제 및 34개 세부 정책과제를 제안하였음.

1) 본고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0년 고유과제인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Ⅲ: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의 결과를 발췌·요약한 것임.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학업중단 학생 수는 2016년에 47,070명에서 2019년 52,539명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2015~2019), 누적인원을 모두 포함한 학령기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추정치는 연구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략 24만명(하형석, 2020)으로 보고되고 있어, 상당수의 청소년이 제도권 교육을 벗어난 상태에서 성인기를 맞고 있음.

- 학교 울타리를 나온 청소년들이 심리적 불안감과 두려움, 특히 미래에 대한 걱정 등(박병금, 노필순, 2016; 백혜정, 송미경, 2015; 윤철경, 유성렬, 김신영, 임지연, 2013)을 크게 경험함에 따라 이들의 건강한 사회 적응 및 성공적인 자립 지원에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학업중단현황, 2019년 통계는 https://kess.chedi.re.kr/stats/school?menuCd=0101&cd=4113&survSeq=2019&itemCode=01&menuId=m_010104&uppCd1=010104&uppCd2=010104&flag=B에서 2020년 2월 10일 인출, 2015~2018년도 통계는 위의 링크에서 연도만 수정

[그림 1] 학교급별 학업중단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그동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로 이들에 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나 대부분 단년도 조사에 그침에 따라 성인기로의 이행과정에서의 후기 청소년의 복잡한 경험들과 이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들을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데 어려운 측면이 있었음. 학교 밖 청소년들이 성장과정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경험과 욕구에 대한 심층적인 자료 수집을 위해서는 이들을 추적하여 면접을 수행하는 질적 패널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됨.

- 또한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난 후 살고 있는 지역에 계속 머무르는 비율이 높음에 따라(윤철경 외, 2017), 가정 외 일차적인 환경체계인 지역사회와의 관계 및 지역사회 지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 2020년도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 질적 패널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수행하고 지역사회 내 주요 지원체계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의 지원내용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해 조사하여, 그 분석결과에 기초한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에 부합하는 지역사회 지원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음.

2. 연구방법

- ▶ 문헌연구: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지역사회 지원 등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국내·외 정책사례 및 3개 대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파악을 위해 행정통계를 포함한 국내·외 문헌을 검토함.
- ▶ 질적연구: ① 2020년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체계 연구가 대도시에 초점이 있음에 따라 기존 패널 중 대도시 거주자 22명을 대상으로 3차 면접조사를, 타 지역 거주자 20명에 대해서는 패널관리조사를 수행하였음. ② 10대 중·후반의 학교 밖 청소년 33명을 대상으로 신규 질적 패널을 구축하여 1차 조사를 실시하고 이중 일부 청소년을 대상으로 웹다이어리 방식의 생활시간을 조사함. ③ 지역사회 지원체계 조사를 위해 3개 대도시 자치구 꿈드림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였음.
 - 기존패널은 2013년의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 (윤철경 외, 2013)에서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로 구축되어 2017년까지 양적패널 조사에 참여한 현재 기준 20대 초중반의 청소년, 청년들임.
 - COVID-19이 심각하게 확산되면서 대부분의 면접조사는 온라인 화상방식으로 수행되었음.
- ▶ 양적연구: 대도시지역에 위치한 총 75개 꿈드림 현장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웹조사)를 실시하였고 최종 56개 꿈드림 실무자를 대상으로 조사 완료함.
- ▶ 이외에 연구방향성 설정, 조사내용 및 방법의 타당성 검토, 정책제언 도출 등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 워크숍, 정책연구실무협의회 및 정책포럼 등을 개최하였음.

[표 1]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연구내용	선행연구 고찰, 국내외 정책사례 조사	기존 학교 밖 패널 조사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 조사	지역사회(대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조사
연구방법	- 문헌연구, 웹 조사	- 기존 패널(대도시 거주) 면접조사 - 타 지역 거주 패널 관리조사	- 신규 패널 구축·면접조사 - 생활시간 조사: 웹다이어리 방식	- 문헌연구(행정통계 검토 등) - 현장전문가 면접조사 - 종사자 대상 웹 설문조사

3. 연구결과

▶ 국내·외 정책 사례

- **국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2014년 관련 법률 제정 이후 전국 214개 지역에 시·도 및 시·군·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또한 맞춤형 직업훈련프로그램으로 내일이룸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 대상으로 건강검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교육부에서는 주로 학업중단을 예방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나 미취학 또는 학업중단 학생을 대상으로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사업, 학업중단학생 교육지원 사업도 실시하고 있음. 대도시 지자체 사업으로 서울특별시에는 여성가족부 산하 꿈드림 시·도센터 외에 별도로 교육청을 중심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에는 5개 자치구 중에서 일부에만 꿈드림 센터가 설치됨에 따라 시·도 센터가 직접 지원 기능도 수행하고 있음.
- **국외:** 아일랜드(더블린)는 학교 안과 밖을 구별하지 않는 전국 평생교육시스템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동등한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있으며, 스웨덴(스톡홀름)은 모든 청소년들에게 학교교육과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일본(요코하마)은 은둔형 외톨이·니트(NEET)에게 적절한 수준의 다양한 훈련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사회복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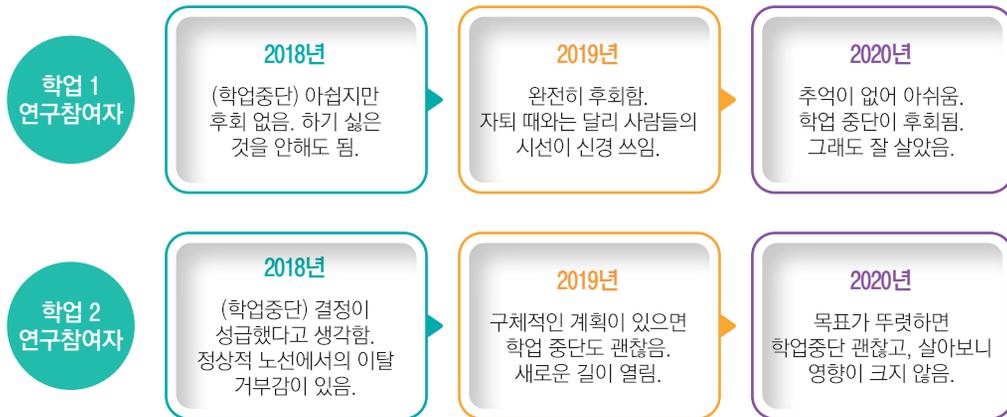
▶ 기존 학교 밖 청소년 질적패널 면접조사 결과

- 면접조사는 현재생활, 학업중단 경험에 대한 현재의 생각, 진로 및 자립 준비 실태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실시하였음. 조사결과는 내용분석과 CQR-M 방법론을 활용·분석하였으며, 학업중단 단계별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음.
- **학업중단 이전 단계의 유형별 서비스 수요:** 자발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능동형'은 학업중단이후의 진로목표가 명확함에 따라 대안교육 및 지역사회 내 진로체험 프로그램인 '꿈길'과 같은 직업체험, 진로탐색 서비스를 필요로 하였음. 심리적·신체적 외상, 경제적 어려움, 가정불화 등의 영향으로 학업을 중단한 '불가피형'은 외상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지속적인 지지·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특별한 동기 없이 학교를 그만둔 '도피형'은 비행또래와의 접촉 차단 뿐 아니라 취업지원시스템 등을 통한 동기부여, 규범 내면화, 성취 기회 제공, 적성 발견 등의 개입이 요구되었음.
- **학업중단 직후의 유형과 서비스 수요:** 학업형 패널 중에서 자아성찰과 주변에 대한 관조 속에서 학업 복귀를 추구하는 '정지형'(정지×학업형)은 심리적 지지를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가 필요했으며, 의미 없는 학교생활로부터 탈출 이후 목표를 발견하지 못한 '배회형'(배회×학업형)은 현재 삶에 만족하면서도 정상에서의 이탈에 대한 불안감으로 검정고시 등을 모색하였음.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학교 밖 경로를 선택한 '주도형'(주도×학업형)의 경우는 입시설명회, 멘토링 등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기대되었음. 취업형 중 '정지형'(정지×취업형)은 장기적 전망 없이 단순 아르바이트 등으로 시간을 사용함에 따라 직업교육, 자격증 교육 등의 서비스가 요구되며,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원치 않는 직업을 전전하는 '배회형'(배회×취업형)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인턴십, 자격증 교육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학령기 이후의 유형과 서비스 수요: 성인기에 들어선 소수의 '정지형'들은 사회적 자원과 소속감이 결여된 상태에서 동기, 의욕, 삶의 의미 모두 공허한 모습을 보였음. '배회형'은 성인기 이행과정에서 진학(배회×학업형) 및 취업(배회×취업형) 좌절을 겪으며 목표의식 상실, 자신감 결핍 상태로 진로·직업체험, 멘토링, 로드맵 코칭 등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였음. '주도형' 연구참여자들은 적극적으로 학업이나 취업 준비·이행 중이었으며 사회적 안전망과 정보/조력을 제공할 지원 시스템을 필요로 하였음.

▶ 질적 중단자료의 심층분석 결과

- 학교를 그만둔 경험이 있는 대도시 거주자 11명의 지난 3년(2018~2020년) 동안의 면접결과를 귀납적 주제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학업중단에 대한 생각, 진로 경험, 도움 경험 및 도움 욕구(요청) 등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음.
- 학업중단에 대한 생각은 이들이 학교에 대해 갖는 기대(의미)에 따라서, 그리고 현재 삶의 만족 정도에 따라서 차이를 보였음.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도 하였으나, 학업형 연구참여자 사례에서 2020년의 3차 조사 시점에서는 학교를 떠난 것에 대해 크게 후회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영향도 크지 않다고 생각하였음[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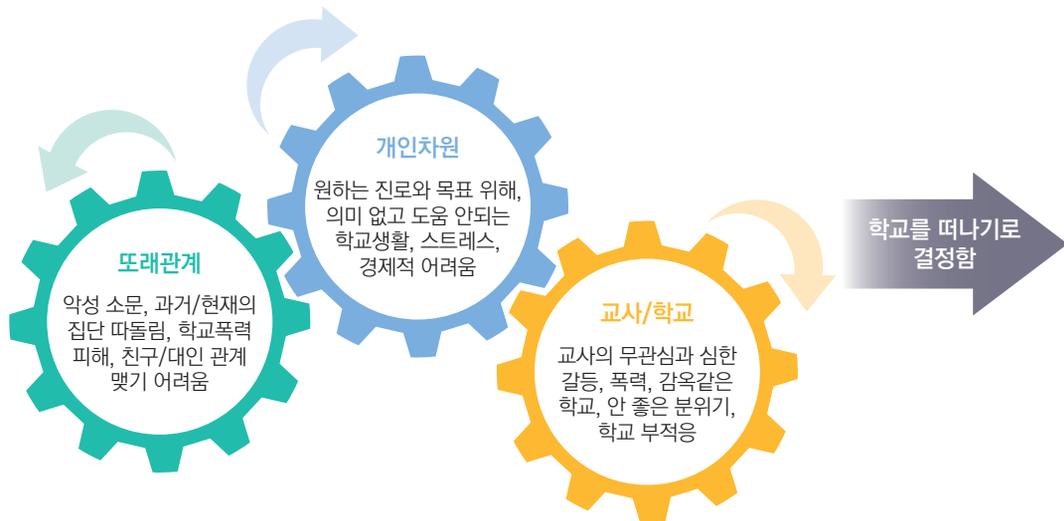
[그림 2] 2018~2020년간의 학업형 연구참여자의 학업중단에 대한 생각의 변화

- 지난 3년간의 진로 관련 특징은 “일관된 흐름”으로 학업중단 초기에는 청소년으로 할 수 있는 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을 닦는 대로 하며, ‘일하고 놀기, 돈이 떨어지면 다시 일하기’를 반복하는 모습이었음. 학업중단 후 5~7년이 흐른 시점에서는 유사 직종의 일을 지속하는 모습, 높은 학벌을 향해 공부하는 모습, 같은 꿈을 꾸는 모습 등을 보였음. 이제 20대 초반을 넘어가는 시점을 놓고 볼 때, 이들의 진로의 특징은 “뒤늦은 진로 선택”, “여지가 없는 선택”이었음.
- 도움 경험과 관련해서는 ‘이용할 수 있는 도움을 잘 모르는 경우’, ‘학업중단 초기에는 어떤 것도 도움이 안된다는 경우’, ‘막상 살아 보니,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분류되었음.

- 질적 중단자료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 학업중단 이전부터 학업중단 이후의 당면 문제(부모자녀관계, 시간관리, 금전관리, 경력관리 등)를 중심으로 한 조기 지원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자발적이고 계획적인 학업중단 사례들에 대한 이해와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개방적이고 전향적인 접근, 꿈드림센터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더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되었음.

▶ 신규 학교 밖 청소년 질적 패널 구축 및 면접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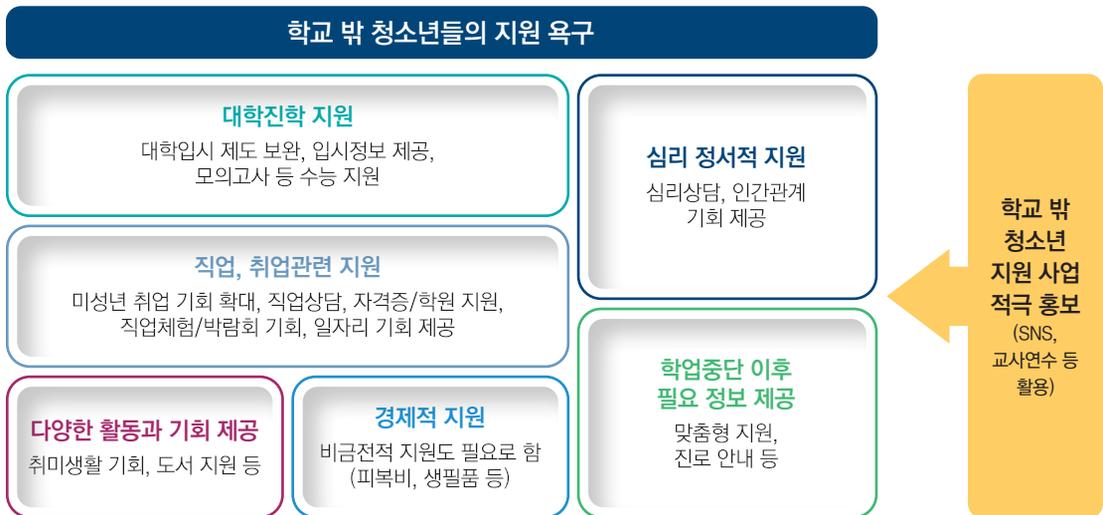
- 신규 패널 구축: 기존 패널이 학교를 떠나고 오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최근에 학교를 그만둔 10대 중후반의 학교 밖 청소년 33명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청소년 쉼터 등을 통해 발굴하여 신규 패널로 구축하고 면접 조사를 수행하였음. 면접조사 내용은 기존 패널과 유사하게 구성하되, 학업중단 계기와 경험에 더 초점을 두었음.
- 학업중단 계기·과정과 이후 변화, 현재생활 탐색, 자신에 대한 생각/진로계획, 학교 밖 이후 지원 경험과 지원 욕구, 지역사회 인식에 대해 조사하였고, 면접결과는 일반적인 귀납적 자료분석 방법을 활용하였음. 분석결과, 주도적으로 자신의 진로목표를 위해 학교를 그만둔 사례도 있었으나, 학교 내에서의 또래관계, 집단따돌림과 학교폭력이 학교를 그만둔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고, 교사/학교의 무관심 속에서 또는 이러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둔 계기

- 면접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 대부분이 학업중단을 후회하지는 않았으나, 간혹 후회할 때는 학교를 그만 둔 이후의 막막함과 또래관계나 단체생활에 대한 동경과 소속감이 없다는 것이 주요 이유였음. 올해는 COVID-19으로 대면접촉이 위축됨에 따라 심리적으로 더 힘들어하는 사례도 나타남.

- 현재 생활을 탐색한 결과, 청소년들은 검정고시/수능 등을 준비하거나, 인턴십/작업장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였고, 또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거나 아르바이트 등을 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위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었음.
-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현재 주도적으로 자기관리를 하고 더욱 책임감이 생겼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책임 없게 어른 사람이라는 부정적 평가도 있었음. 고등학교 입학 및 검정고시 준비, 대학진학 준비, 취업 준비 등을 계획하였고 장기적으로 특정 직업이나 창업을 희망하기도 함.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서비스에 대해 청소년들은 대체로 만족하였으나, 더욱 심층적인 대학진학 및 직업/취업관련 지원, 심리정서적 지원, 다양한 활동과 기회 지원, 경제적 지원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대도시 지역의 청소년들에게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많았으며, 읍면지역은 서비스 접근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림 4]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욕구와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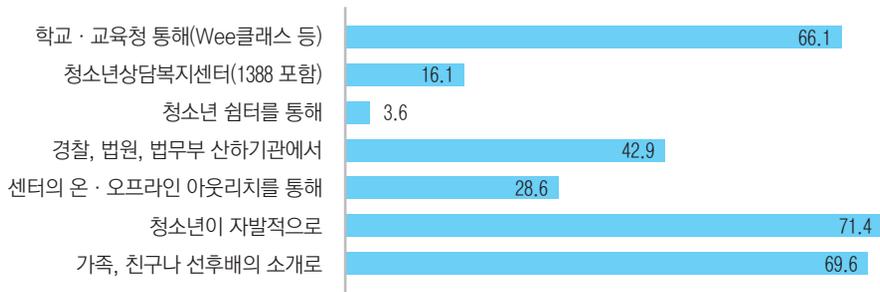
- 생활시간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검정고시/수능 준비, 인턴십/작업장 프로그램 참여, 자격증 취득 준비, 아르바이트 등을 하고 있었으며, 이와 관련된 평일 낮 시간 생활과 이외 주말·야간 시간의 생활 패턴의 차이가 컸음. 낮에 주요 일과가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스마트폰/PC를 하면서 보냈고, 수면시간, 특히 운동시간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지역사회 지원체계 조사(1): 대도시 지역 현장전문가 면접조사 결과

- 성과가 좋은 프로그램의 성공 요인으로 지역사회의 지원, 실무자의 적극적인 의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소속감 증진,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이벤트 마련, 프로그램 기획 시 청소년의 욕구 및 의견 반영 등이 조사되었고, 대도시에 위치한 센터들은 다양한 인프라와 대중교통을 통한 기관 접근성 용이, 지자체 및 지역 네트워크와의 원활한 연계와 같은 장점이 있었음.
- 보완사항으로 지역사회 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허브기관으로의 꿈드림 역할 부여, 지역사회 청소년사업장 대상 인센티브 강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학교 밖 청소년 인식개선 필요성 등이 언급됨. 또한 성과위주의 평가체제로 인한 업무 부담과 실무자에 대한 처우개선도 강조되었음.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발전방안으로 기관 특성을 반영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 지원 서비스 및 관련 인프라의 분산,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공간 및 예산지원 확대, 현장실무자에 대한 처우개선, 관련 전담 공무원 배치 등이 제시됨.

▶ 지역사회 지원체계 조사(2): 대도시 지역 꿈드림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 대도시(특별시·광역시)에 위치한 75개 꿈드림 중 56개 센터가 설문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이들 꿈드림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연령대는 만 15~19세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주요 이용 경로로 청소년의 자발적 이용, 가족/친구/선후배 소개, 학교/교육청 연계를 통한 사례가 가장 많았음.



[그림 5] 학교 밖 청소년의 꿈드림 주요 이용 경로 (1, 2, 3 순위 응답을 합친 비율)

- 조사에 참여한 대도시 지역 90% 이상의 센터에서 심리, 신체적 건강지원(건강검진 포함), 검정고시 및 대입지원, 직업훈련 및 진로지도 등을 제공하고 있었으나, 인터넷 중독 및 전문 상담기관 연계는 55.4%, 자산관리 등 경제교육은 69.6%, 취업정보 등은 71.4%의 센터들이 제공하였음.
- 센터들 중 3/4의 센터들이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이 어렵다고 하였으며, 2/3 이상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심리적, 행동적 문제로 지원에 어려움이 있으며, 방임 및 가족 갈등 등 문제가 많고, 청소년들의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였음.

- 조사에 참여한 80~90%의 센터 종사자가 예산이 부족하며 종사자 처우가 낮다고 생각하였고, 약 40%의 종사자가 지역사회 내 연계·협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음. 대도시 지역에서의 센터 운영의 애로사항으로 전용공간의 부족함과 낙후된 시설, 도시 외곽지역의 경우 인근 읍면지역과 다를 바 없는 교통편 부족도 지적됨. 무엇보다 대도시 지역사회 내 유사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시설이 많음에 따른 대상자 중복과 이로 인해 학교 밖 청소년 발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꿈드림 고유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차별화된 지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시사하였음.
- 지자체/기초지자체의 관심과 지역사회의 물리적 조건에 따라 꿈드림 간의 서비스 격차가 컸으며, 대도시 지역 꿈드림 차별화를 위해 ‘서비스 제공 내용에 있어서의 차별화’, ‘특성화와 지역사회 내 연계 및 핵심 기능 담당’의 필요성이 대두됨. 향후 꿈드림의 발전 방향성으로서 지역/대상/시의성을 고려한 서비스 특성화, 경계성 지능 청소년 등 지원대상의 확대, 종사자 처우 개선, 개별 센터로서의 독립성 보장과 실적 중심 평가방식 변경 등이 제시되었고, 지역사회 내 인턴십 기회 확대와 취업처와의 연계를 위한 지자체 노력이 강조되었음.

4. 정책제언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로서 선행연구 고찰, 국내·외 정책사례 현황 검토, 기존 패널과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 면접조사, 대도시 지역 꿈드림 지원 내용과 현장종사자 대상의 면접조사 및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과 대도시에서의 지원체계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였음.
- ▶ 먼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서비스 전달체계, 그리고 본 연구의 주요 주제인 지역사회 지원을 위한 기본 방향으로 ① 청소년의 요구와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지원 마련, ②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의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 강화, ③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대대적인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및 홍보, ④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전문성 강화와 인프라 개선, ⑤ 지역사회 및 환경을 고려한 지원체계 구축, ⑥ 대도시 꿈드림의 차별화 전략 구축을 제시함.

- 1 청소년의 요구와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지원 마련
- 2 꿈드림: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진출의 교두보 역할 강화
- 3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대대적인 인식 개선 사업 및 홍보
-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전문성 강화와 인프라 개선
- 5 지역사회 및 환경을 고려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
- 6 대도시 꿈드림 센터의 차별화 전략 구축

[그림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기본 방향 제언

- ▶ 구체적인 정책과제는 표 2와 같이 꿈드림센터 등을 통한 현장지원체계에서 → 일반 지역사회 체계 → 대도시 체계 → 중앙부처 순서대로 제시하였으며, 전체 정책과제와 세부정책과제, 추진기간과 추진체계를 정리하였음. 우선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직접지원과 관련하여 '패러다임의 전환: 비대면 사업 개발 및 대면 서비스와의 유기적 연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상 확대', '청소년 욕구 맞춤형 다양한 프로그램/공간 지원',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 확대'와 같은 정책과제와 관련 세부 정책과제들을 제안하였음.
- ▶ 다음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지원체계와 관련하여 지자체, 지역사회 정책 담당자들의 인식 개선을 통한 지원 확대, 지자체/기초지자체 내 종사자 처우/시설 인프라 지원 노력, 지역사회 내 관장은 일자리 개발 및 지원 환경 구축, 행정체계를 활용한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등의 정책과제를 제안하였음.
- ▶ 대도시 지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와 관련해서는 대도시 지역에서의 꿈드림 차별화 전략, 대도시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체계 재구조화, 대도시 소외지역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대한 정책과제를, 그리고 중앙부처 차원으로는 법·제도적 측면, 인식 개선 사업, 종사자 처우 개선과 교육부의 꿈드림 인식 개선 등과 관련된 정책과제를 제안함.

[표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세부 정책과제

영역	정책과제	세부 정책과제 내용	추진기간
1.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직접지원 정책과제	1-1. 패러다임의 전환: 비대면 사업 개발 및 대면 서비스와의 유기적 연계		단기~중기
	1-2.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상 확대	만 19~24세 연령 청소년	중기
		장기결석학생	단기-중기
		경계선 지능 학교 밖 청소년	단기-중기
	1-3. 청소년 욕구 맞춤형 다양한 프로그램/공간 지원	전문적인 심리상담/심리적 외상 치료	단기-중기
		사회적 트렌드를 반영한 진로지도	단기-장기
		수능, 대입지원 확대	단기
		청소년 요구 · 지역특성 고려한 인턴십 기회 및 청소년작업장 개발	단기-중기
		문화체험, 야외/신체활동 기회 확대	단기
		청소년 자치기구, 위원회 사업 활성화	단기
		사회성, 업무역량 개발	단기-중기
		통합지원 필요한 사례들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강화	중기
	휴식/놀이 공간 마련	단기-중기	
	1-4. 미래 설계 기초를 위한 경제적 지원 확대		단기-중기

영역	정책과제	세부 정책과제 내용	추진기간
2.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지원 체계 정책과제	2-1. 지자체, 지역사회 정책 담당자들의 인식 개선을 통한 지원 확대		단기-장기
	2-2. 지자체/기초지자체 내 종사자 처우/시설 인프라 지원 노력		중기
	2-3. 지역사회 내 관찮은 일자리 개발 및 지원 환경 구축		단기-장기
	2-4. 행정체계를 활용한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중장기
3. 대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정책과제	3-1. 대도시 지역에서의 꿈드림 차별화 전략	꿈드림 정체성 재정비	중장기
		진로관련 사업 특성화	중기
		휴식 공간/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차별화	중기
	3-2. 대도시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체계 재구조화	대도시 내 인근센터와의 통합 모델 운영	중장기
		꿈드림 연합사업운영체(가칭) 설립	중기
		학교밖청소년통합지원센터 지정·운영	중장기
	3-3. 대도시 소외지역에 대한 관심과 지원		단기-중기
4. 중앙부처 차원의 정책과제	4-1. 학교 밖 청소년 및 꿈드림 관련 법/제도적 측면 개선	청소년정보 연계관련 법령개선	중기
		꿈드림 운영의 향후 방향성 설정 필요	중기
		사업실적 평가체계 개선	중기
	4-2.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개선과 국가적 차원의 꿈드림 홍보		중장기
	4-3. 현장실무자 처우와 전용공간 마련 등 인프라 개선	종사자 처우 개선	단기-중기
		독립된 전용공간 확대	단기-장기
	4-4. 교육부/교육청의 꿈드림 인식 개선과 비 학생 대상 공평한 기회 제공	꿈드림에 대한 인식 제고	단기-중기
		조기 개입 시 꿈드림과 연계	중기
		학교 밖 청소년에게 공평한 기회 제공	중장기

참고문헌

- 박병금, 노필순(2016).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중단과정과 학교 밖 생활경험. 청소년학연구, 23(8), 47-78.
- 백혜정, 송미경(201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연구보고 15-R09).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철경, 유성렬, 김신영, 임지연(2013).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연구보고 13-R18).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철경, 성윤숙, 최홍일, 유성렬, 김강호(2017).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 연구 II(연구보고 18-R16).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연도별(2015-2019) 학업중단현황. <https://kess.kedi.re.kr/index>에서 2020년 2월 10일 인출.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학업중단현황. https://kess.kedi.re.kr/stats/school?menuCd=0101&cd=4113&survSeq=2019&itemCode=01&menuId=m_010104&uppCd1=010104&uppCd2=010104&flag=B에서 2020년 2월 10일 인출.
- 하형석(2020). '학교 밖 청소년'이 얼마나 있을까?. NYPi 블루노트 통계, 5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https://www.nypi.re.kr/brdrr/boardrv/view.do?menu_nix=ua51GjZA&brd_id=BDIDX_9QHE68LfE56Tcg80dqU23q&tab=에서 2020년 12월 3일 인출.